

**제목 Theme:**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가시더라 **The Favor with God and Men**

**본문 Scripture:** 누가복음 **St. Luke 2:40-52** 절

40.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The Child continued to grow and become strong, increasing in wisdom; and the grace of God was upon Him.**

41.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Now His parents went to Jerusalem every year at the Feast of the Passover**

42. 예수께서 열두 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And when He became twelve, they went up there according to the custom of the Feast;**

43.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and as they were returning, after spending the full number of days, the boy Jesus stayed behind in Jerusalem. But His parents were unaware of it,**

44.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but supposed Him to be in the caravan, and went a day's journey; and they began looking for Him among their relatives and acquaintances.**

45.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When they did not find Him, they returned to Jerusalem looking for Him.**

46.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Then, after three days they found Him in the temple, sitting in the midst of the teachers, both listening to them and asking them questions**

47.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And all who heard Him were amazed at His understanding and His answers**

48.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When they saw Him, they were astonished; and His mother said to Him, "Son, why have You treated us this way? Behold, Your father and I have been anxiously looking for You."**

49.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And He said to them, "Why is it that you were looking for Me? Did you not know that I had to be in My Father's house?"**

50.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But they did not understand the statement which He had made to them**

51.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밟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And He went down with them and came to Nazareth, and He continued in subjection to them; and His mother treasured all these things in her heart**

**52.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And Jesus kept increasing in wisdom and stature, and in favor with God and men**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성장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까지의 내용 중에서 유일하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기록자 누가가 이곳에 소개한 이유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공생애 사역까지의 성장에서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건전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장했음을 소개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하여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자녀들의 교육에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기(예수님)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성장까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관계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살 되시던 때에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때까지만 해도 부친이었던 요셉이 살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부모들은 구약의 율법을 따라 절기의 전례를 잘 지켰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이라는 내용에서도 전통적인 구약의 약속을 잘 지키는 가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가정 교육을 잘 받고 성장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열 두 살 되던 때에 절기의 전례를 따라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육신적 가족은 예수님 외에도 **마태복음 13:55** 절에서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야,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느냐?”** 그렇다면 온 가족이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의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올라갔다면 절기를 마치고 내려 갈 때도 함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생들의 내용이 없는 것을 보면 모두 부모님의 말을 잘 따르는 아이들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43** 절에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과 부모와의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부모들은 예수에 대하여 믿을 수 있도록 항상 안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없는데도 옆에 있는 것처럼 의심하지 않고 하룻 길을 내려 갔을 때 예수님의 없는 것을 발견하고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았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항상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수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갔다가 내려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내려 오면서 예수님이 당연히 가족 중에 있는 것으로 생각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만큼 성장하면서 착하고 성실하게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난 지 사흘 후에 다시 성전에 도착하니 아이 예수님은 성전에서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히 여기더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나이였지만 선생들과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며 선생들이 그의 지혜에 놀랄 정도라고 했으니 늘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40** 절). 그리고 **48** 절에서 예수님의 보모들은 예수님의 지혜에 대하여 놀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라고 했습니다. 그 가족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근심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근심하게 된 것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양친이 그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아이 예수님께서는 부모에 대하여 반항하는 것이 아니시라 예수님의 본질을 알게 해 주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장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생각하고 계셨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적 성장이 착하고 성실하게 부모에 대하여 근심하지 않게 성장하는 동안에 부모는 아기 예수님께서 성령에 의하여 잉태하여 태어난 것을 잊어 버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그 부친 요셉과 모친 마리아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로 성령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잊어 버리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함께 내려가사 집이 있는 나사렛에 이르러 부모에게 순종하며 받들어 성장했는데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라고 했습니다(**51 절**). 그 모친 마리아가 마음에 둔 것은 예수의 말인데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49 절**)”라고 한 말이었습니다. 모친 마리아는 공생애 기간이 시작할 때 친족 중에 결혼식이 가나에서 있었는데 그 때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를 통하여 태어난 것을 인정하였고 예수님께서도 그 때부터 모친 마리아를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다**”라는 말로 인정하게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 예수님은 열 두 살 때 유월절을 위하여 방문했던 예루살렘에서 고향 칼릴리 나사렛으로 돌아간 후에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한 마디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1:4-6** 절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으며 그 후에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해야 한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 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성장하신 것처럼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솔로몬에게도 **열왕기상 3 장 9 절**에서 주님의 백성에게 선악을 분별하여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니 **10 절**에 “**주의 마음에 든지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의 성장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으며 그 내용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부모의 **가정 교육을 잘 받았다는 것**입니다. (**41 절**)

**1 구약의 절기를 잘 지켰다는 것입니다 - 41 절**에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2 예수님께서 열 두 살 될 때에** 데리고 갔다고 했습니다 - **42 절**에 “**예수께서 열 두 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趨아 올라갔다가**”라고 했습니다

**3 출애굽기 20:12 절**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둘째, 예수님은 부모들이 믿을 수 있는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44 절)

1 돌아 갈 때 예수님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44 절)

2 모친 마리아는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48 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선생들과 대화하고 있기 전에는 근심하게 한 적이 없는 아들이었다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47 절)

1 성전의 선생들이 예수님 “지혜와 대답을 기이히 여기더라”(47 절)라고 했습니다.

2 고린도전서 1:21 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3 고린도전서 1:24 절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성도)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넷째, 예수님은 부모들을 순종하여 섰겠다는 것입니다(51 절)

1 “예수께서 한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51 절)

2 애베소서 6:1 절 “자녀들아(성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3 골로새서 3:20 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

다섯째,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웃들에게도 아름답게 성장했다는 것입니다(52 절)

1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52 절)

2 시편 92:12 절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